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한은 주택담보대출 급증

-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‘11월중 금융시장 동향’을 보면 11월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면서 은행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.
 - 11월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28조 3천억원으로 전월대비 4조 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- 11월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81조 9천억원으로 10월에 비해 2조 9천억원 증가했으며,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임.
 -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 모기지론 등을 포함할 경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 5천억원이며 이 또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 규모임.
 - 한국은행에 따르면,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집단대출이 늘어나고, 주택거래 증가,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, 낮은 대출금리 등의 영향으로 개별대출도 호조를 보였기 때문임.
 -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1조 2천억원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냄.
-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 확대와는 달리 은행 기업대출은 11월말 잔액이 529조 7천억원을 나타내면서 7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침.
 - 기업대출은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지난 10월 5조 1천억원의 급증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11월에는 우량기업 중심으로 자금수요가 축소되고 일부 은행이 대출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하면서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됨.
 - 특히, 대기업 대출은 1조 8천억원 증가한데 반해 중소기업 대출은 1조 1천억원 감소함.
- 11월중 기업어음(CP) 순발행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회사채 순발행 규모와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 수준을 유지함.
 - 기업어음(CP)은 운전자금이나 인수합병(M&A) 자금 수요 등으로 11월 1~20일 기준으로 1조 8천억원이 순발행되면서 2조원 내외의 증가세를 이어감.
 - 공모 회사채는 2조 5천억원이 순발행되어 전월에 이어 2조원대의 순발행을 나타냈으며 기업들의 주식발행 규모는 7천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.

(2010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등, 한국은행 등, 12/8)